

이상원 | 외환분석부장 (제 7110)

- 주요 뉴스: 중국 정부, 對미국 보복관세 부과(모든 수입품에 34%, 4.10일부터 발효)
 - 미국 트럼프 대통령, 연준 파월 의장에게 정책금리 인하 촉구
 - 미국 고용보고서(비농업고용 +22.8만명), 3월까지의 견조한 노동 상황 반영
 - 유럽연합(EU), 보복관세를 배제한 對미국 대응 패키지 준비 중
- 국제금융시장: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로 글로벌 무역갈등 및 성장둔화 우려 확대
 - 미국 주가 하락[-6.0%], 달러화 강세[+0.9%], 미국 금리 하락[-4bp]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중국의 對美 보복관세로 큰 폭 하락. 나스닥은 바이마켓 진입
유로 Stoxx600지수는 무역갈등 및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5.1% 하락
 - 환율: 달러화지수, 파월 의장의 금리인하에 대한 신중한 입장 표명 이후 상승폭 확대
유로화 가치는 0.9% 하락, 엔화 가치는 0.6% 하락
 - 금리: 미국(10년물)은 3월 비농업고용 호조가 하락세를 완화했으나 4% 하회
독일은 관세發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7bp 하락

※ 뉴욕 1M NDF 증가 1457.1원(스왑포인트 감안 시 1459.5원, 0.1% 하락). 한국 CDS 상승

		4/4일	4/3일	전일대비			4/4일	4/3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5,074.1	5,396.5	-5.97%	국채 금리 10y	미국	3.99%	4.03%	-4bp
	유럽	496.33	523.12	-5.12%		독일	2.58%	2.65%	-7bp
	중국	휴장	3,342.0	-		영국	4.45%	4.52%	-7bp
	일본	33,781	34,736	-2.75%	CDS 5y	한국	46bp	40bp	+6bp
	한국	2,465.4	2,486.7	-0.86%		중국	67bp	60bp	+7bp
	달러지수	103.02	102.07	+0.93%	위험 지표	EMBI+	425	409	+16
환율	유로화	1.0956	1.1052	-0.87%		VIX	45.31	30.02	50.93%
	엔화	146.93	146.06	-0.59%		WTI유	61.99	66.95	-7.41%
	위안화	휴장	7.2818	-	원자재	구리	440.2	482.9	-8.83%
	원화	1,461.0	1,453.5	-0.51%		금	3,038.2	3,115.3	-2.47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중국 정부, 對美 보복관세 부과. 미국 트럼프 대통령, 연준에 금리인하 촉구

- 국무원 관세세척위원회는 4.10일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%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. 4.2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(對중국 34% 등)에 대해서는, 국제무역의 규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중국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형적인 일방적 괴롭힘이라고 비난
 - 아울러 중국 정부는 신화통신을 통해, 미국이 일방적 관세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평등·존중·호혜 원칙에 따라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협의에 임할 것을 촉구
-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(Truth Social)를 통해 “중국은 당황했고, 감당할 수 없는 악수를 두었다_{played it wrong}”는 입장을 밝힌 한편, 연준 파월 의장에게는 “지금이야말로 정책금리를 인하하기에 완벽한 시기”라고 발언
 - 연준 파월 의장은 관세 인상 폭이 예상보다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물가 상승과 성장률 둔화 폭 또한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. 연준은 정책 입장의 조정을 고려하기 전에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으며, 통화정책의 적절한 경로를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입장을 재표명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고용보고서, 3월까지의 견조한 노동 상황 반영

- 노동통계국(BLS)이 발표한 3월 비농업부문 고용자수_{nonfarm payroll}는 22.8만명으로, 전월(11.7만명)에 비해 증가했으며 예상치(Bloomberg 14.0만명)를 큰 폭 상회. 실업률의 경우 4.2%로 전월(4.1%) 대비 상승하면서 예상치(4.1%)를 소폭 상회
- 다만, Wells Fargo는 최근 무역갈등이 급격하게 고조되면서 경제 전망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3월 고용보고서를 통해 긍정적인 신호를 얻기는 어렵다고 평가. Citi는 현재의 미국 노동시장은 높아진 불확실성 및 관세 비용, 정부 지출·고용 감소, 기업·소비자 심리 악화 등 새로운 충격을 견디기에는 취약할 것이라고 평가

■ 유럽연합(EU), 보복관세를 배제한 對미국 대응 패키지 준비 중

-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, EU의 對미국 협상은 관세를 늘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면서 보복관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

- 프랑스 롬바르드 재무장관, 유로존이 미국처럼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인플레이션과 성장 둔화를 경험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, 유로존은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고 공정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관세를 뛰어넘는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

■ 독일 제조업 수주, 감소세가 둔화되었으나 전망은 여전히 부정적

- 연방통계청(FSO)이 발표한 2월 제조업 수주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(0.0%)했으며, 1월 수치는 전월 대비 감소 폭이 축소(-7.0% → -5.5%)되는 방향으로 조정되는 등 저점 통과 조짐. 다만, Commerzbank는 독일 경제가 여전히 정체기에 머물러 있으며 미국발 관세 위험 등으로 회복세는 매우 완만할 것이라고 전망

■ 러시아 정부, 미국발 관세 위험의 간접적 영향에 대한 대응 강화 시사

- 크렘린궁 페스코프 대변인, 러시아는 제제 등으로 미국과 실질적인 무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었으나, 미국발 관세 위험이 러시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, 잠재적 충격 으로부터 러시아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

■ 대만 정부, 미국발 관세 위험에 대응해 수출기업 지원 강화

- 쥐룽타이 행정원 원장(≡국무총리), 정부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불합리하고 정부의 책임은 위험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라면서 전자·철강 부문 등 관세로부터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기업들을 돕기 위해 880억 대만달러(≡US\$87억)를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. 아울러, 관계 부처(경제무역협상실)로 하여금 미국과 대화할 것을 촉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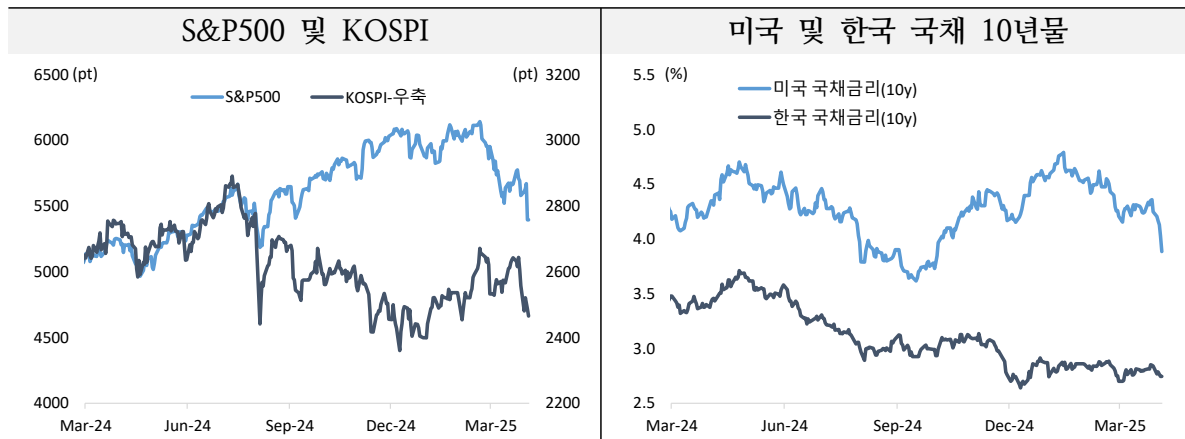
■ 필리핀 인플레이션, 5년래 최저 수준으로 둔화

- 중앙은행(BSP)은 3월 소비자물가(CPI) 상승률(+1.8%, 전망 +2.0%)이 2월(+2.1%) 대비 둔화되었다고 발표하면서, 최근 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통화정책 완화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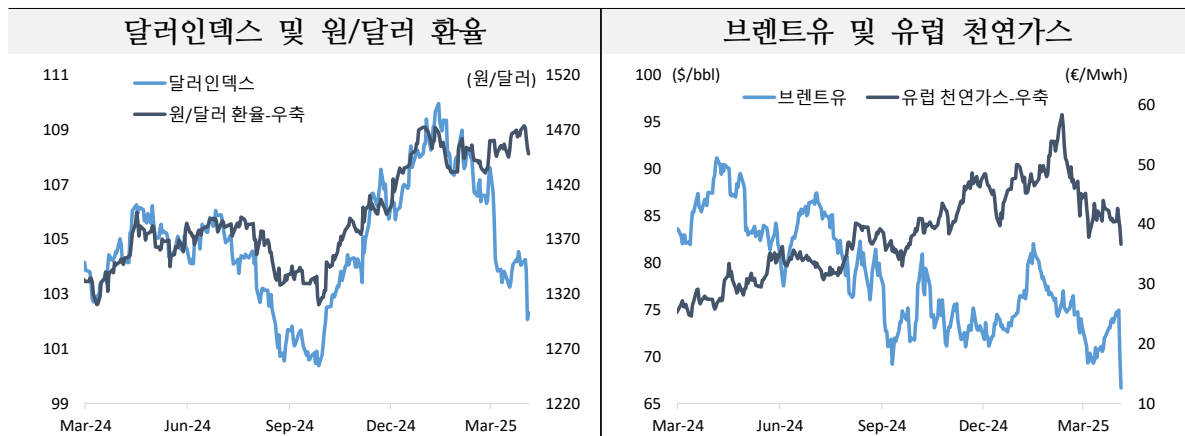
주요 경제·금융 이벤트

- 유로존 2월 소매판매(예상 +0.5%, 1월 -0.3%), 독일 2월 산업생산(예상 -1.0%_{mom}, 1월 +2.0%), 중국 3월 외환보유액(예상 \$3.26조^{이상} Bloomberg 서베이, 2월 \$3.23조) 등 발표 예정
- EU 통상장관들의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세 패키지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, 달러스 연은 로건 총재의 통화정책 관련 발언 등 예정(현지 시간 4.7일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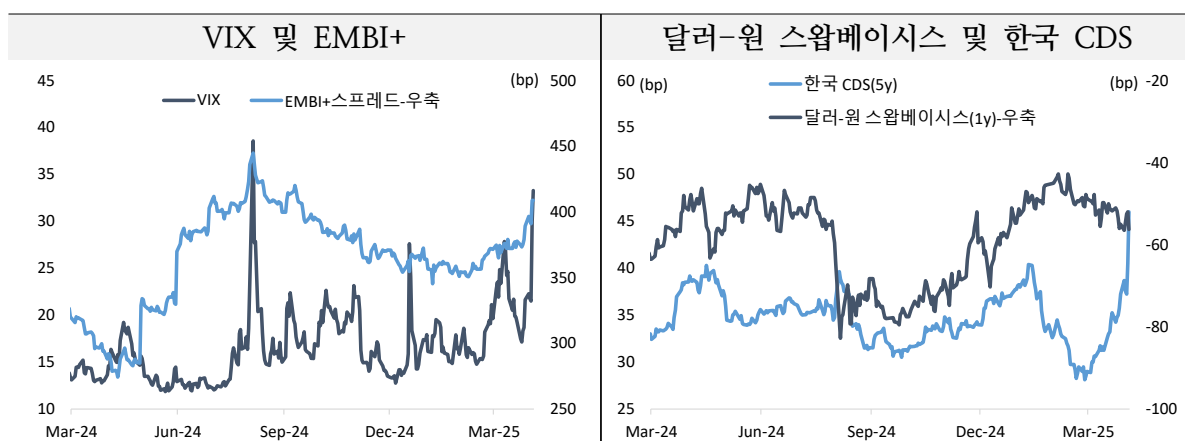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11, E-mail swlee@kcif.or.kr